

전북도-전북농협, 내달 2일까지 '농산물 특별판매전'

도내 우수농산물 '한눈에'

전국 롯데마트에서

전북농협과 전라북도는 9월 2일까지 전국 롯데마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전북 우수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함께 기획한 '코로나19 극복 전북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을 연다.

전북농협과 전라북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4월~5월에는 전북도청

주차장에서 우리농산물 드라이브스루 소비촉진으로 6회 완판행진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번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4주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대형유통사(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전국 매장에서 전북도 농산물 홍보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점행사와 시식행사가 전면 취소하고, 수도권 매장에 전북도광역브랜드 예담채 브랜드 광고와 홍보와 롯데

마트 전단지, 타임세일, 매장 안내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할 계획이다.

전북농협과 전라북도는 전북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2019년 롯데마트 전주점에서 지역농산물관을 처음 개점하고, 이어 2014년 송천점과 2015년 군산점, 익산점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북 GAP농산물 홍보 판매전을 함께 추진하는 등 전북농산물 판매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과 전라북도는 9월 2일까지 전국 롯데마트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전북 우수농산물의 판매확대를 위해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함께 기획한 '코로나19 극복 전북 우수농산물 특별판매전'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입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농업한류 '코피아', 필리핀 벼 생산성 30% 향상

'필리핀, 식량자급 달성 프로그램 시행'에 농진청, 벼 우량종자 생산기술 지원

농진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필리핀 센터가 추진한 '벼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시범 마을사업'을 통해 필리핀의 벼 생산량이 증대되고 농가 소득이 크게 향상됐다고 27일 밝혔다.

필리핀은 2008년 국가적 위기 수준의 쌀 파동을 겪은 이후 2011년부터 쌀 자급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식량자급 달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농진청은 필리핀 벼 연구소(PhilRice)와 공동으로 벼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시범 마을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3년간 누에바에시하(Nueva Ecija) 등 현지 4개 지역 1,420 농가(4,913헥타르)를 대상으로 시범 마을사업을 추진한 결과, 벼 수량이 헥타르 당 3.8톤에서 4.5톤으로 18.4% 향상됐다. 앞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필리핀 현지 적응성이 뛰어난 벼 품종으로 '밀양23', 'MS11', 'Japonica6' 등을 선발하고 재배기술 개발과 벼 작부체계를 개선했다.

또 농진청은 시범 마을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사업 기간(2018~2019년) 동안 3개 마을에 대한 경영분석도 실시했다. 경영분석 결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사업 초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사업에 참여한



지난해 건기 누에바에시하 주 벼 우량종자 보급행사

누에바에시하, 일로일로, 보홀 등 3개 주 농가의 소득은 평균 30% 증가했다. 농가 소득 증가의 주요인은 '밀양23', 'MS11' 등 다수확 품종 선발 및 재배기술 개발, 수리 불안전 지역의 소규모 관개수로 및 양수시설 지원, 쌀 상품화 기술지원 등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진청은 필리핀 시범 마을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필리핀 벼 우량종자 생산 기술서'를 발간, 배포했다.

각 시범 마을의 농업적 특성, 추진 전략, 종자 파종 기술부터 수확 후 관리기술을 아우르며 벼 생육 시기 별로 투입한 재배기술, 시범 마을사

업의 성공과 실패사례 등을 수록했다.

이집식 농진청총청 국외농업기술과장은 "한글과 영문으로 발간된 기술서는 필리핀 현지 기술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행하는 유관 기관 및 관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농진청총청이 주관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으로,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농업기술지원과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 인식 개선 큰 기여

상반기 서비스 이용자 대상 설문 결과... 인식도 93.4점

국민연금공단은 상반기 노후준비 서비스 설문 결과, 공단의 노후준비 상담서비스가 노후준비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노후준비 서비스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이용고객에게 노후준비 상담 전·후의 인식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노후준비 인식도'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노후준비 서비스 이용 고객 10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준비 인식도가 93.4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 연령층에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최초 조사를 실시한 2012년과 대비해 11.9점 상승한 것으로 공단이 노후준비 인식도 개선을 위해 재무상담 등 다양한 노후준비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해석된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중요성(94.5) ▲노후준비의 필요성(94.1) ▲개인연금, 퇴직연금, 저축 등의 필요성(90.3) ▲건강, 여가 등 비재무 분야의 준비 필요성(89.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최초 도입한 2008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11년여 동안 502만여 명의 국민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준비에 기여하고 있다.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가 국민들의 노후준비 인식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공단의 노후준비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조달청, 리퓨어에 지역 우수조달업체 표창



전북지방조달청은 27일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통해 조달등록 제품

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주)리퓨어를 지역 우수조달업체로 선정해 표창했다. 이번 선정된 (주)리퓨어는 호남지역 최초로 데스크톱 PC를 조달등록(MAS)한 업무용PC 전문 제조업체로서 녹색기술 인증, 대기전력저감 인증, 관련 특허 보유 등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으로 융복합 4차 산업분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주목받는 여성기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올해 1차 선정

백년가게 3곳 현판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올해 1차로 백년가게에 선정된 전북지역 4곳 중 장미갈곡수, 대한체육사, 화산축산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장미갈곡수'는 2대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군산시 갈곡수 전문점으로 대표메뉴인 갈곡수는 생뽕치로 우려낸 맑고 시원한 육수와 직접 반죽해 뽑아낸 쫄깃하고 고소한 면발이 일품이며, 특히 갈곡수와 찰떡궁합인 곁들이는 여러 방 송프로그램의 걸작이 달인으로 출연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대한체육사'는 스포츠용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100여 평의 넓은 매장에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전산화된 상품관리와 전문적인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과의 신뢰를 위해 46년 동안 한결같은 영업시간을 유지해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화산축산'은 전주에서 자리잡아 38년 동안 '내 아이들이 먹는 식품처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자'는 창업자의 뜻을 이어받아 위생적인 식육제품 가공기술 확보하고 전북 최초로 HACCP인증을 받는 등 진실한 경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돋보이는 곳이다. /김윤상 기자

LH전북본부,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착수

올해 대상으로 군산 나운4

익산 부승1 2개 단지

LH전북지역본부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에너지효율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 영구임대단지는 군산나운4, 익산부승1 2개단지이며, 연립된 2세대의 비내력벽을 철거해 소형평형(전용 26㎡)을 넓은 평형(전용 52㎡)으로 리모델링하는 세대통합형과 장기간 공기로 남아있는 26㎡평형을 전면 리모델링한 단일세대형 두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모든 세대는 고효율 단열재, 고성능 창호, 절수형 수도꼭지, 친환경 자재시공으로 에너지 성능을 강화해 주택성능을 향상하고 입주대상을 고려한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사업대상 가구는 다자녀가구 등에 공급하는 세대통합형 40호, 대학생 및 보호종류 아동 공급세대 20호, 고령자 및 장애

인 공급세대 20호이며, 연내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전주시내 다가구, 다세대 매입주택 중 노후화가 심한 220세대에 대해서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된다.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고효율 보일러, LED 전등, 절수형 설비 설치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단지여건에 따라 옥상방수 및 내부 단열재 교체 등의 맞춤형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LH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주택 내·외부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기후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입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LH전북지역본부 권창호 본부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구현된 공간들이 LH 임대주택 입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2021년 이후에는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사업대상이 확대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